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리더십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 남아와 여아의 차이를 중심으로 -

장 윤 희¹⁾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문 혁 준²⁾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남아와 여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자기조절능력, 리더십과 아동의 또래관계를 설명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10개 학급에 다니고 있는 314명의 아동들이며, 그 중 남아는 146명, 여아는 168명이었다. 남녀 아동의 차이 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리더십과 또래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남아의 경우, 출생순위가 상위인 남아일수록 자기조절능력과 리더십이 높고, 비취업모를 둔 남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더 높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들 변인 간 영향력과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조절능력과 리더십이 남아와 여아의 또래관계에 모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출생순위, 부모의 교육수준, 취업모 여부와 자기조절능력, 리더십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남아, 여아,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

1)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과정

2)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 (E-mail : mhyukj@unitel.co.kr)

I. 서론

아동은 성장하면서 점차 자신에게서 자기 주변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간다. 또래집단은 대표적인 사회집단이며,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자아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발달해간다는 점에서 또래와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지희, 문혁준, 2008).

또래(peer)란 전형적으로 아동과 연령이나 성숙 정도에서 유사한 타인을 일컫는다(Santrock, 2003). Piaget(1965)는 ‘또래’란 ‘평등’을 의미하며, 어린이들 사이에 수립된 친구관계에는 나름대로의 평등주의적 경향이 있으며, 상호 합의의 기반 위에서 성립되는 것이라 하였다(김귀자, 2004, 재인용).

Rubin(1982)은 또래간의 관계에 대해 부모-자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회적 교류를 경험하게 하며 자신을 또래와 비교하는 가운데 자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집단 소속감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Ladd와 동료들(1990)은 학기 내에 안정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한 아동은 학교에 대한 더욱 우호적인 태도를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관계형성에 필수조건인 사회적 기술의 학습은 성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또래관계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으므로(Goin, 1998), 또래관계는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을 훈련시키고

사회적 지원과 안정감을 제공하여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도 기여한다(Bukowski & Hoza, 1989).

특히, 학령 후기의 아동들은 또래관계를 중요시하고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고학년이 될 무렵부터 서로의 유사성에 의해 친구관계망이 확대되므로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주고받는다. 즉, 이 시기의 또래관계는 매우 역동적이며, 사회성 발달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령 후기 아동들에게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은 그들이 달성해야 할 주요 과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신희이, 문혁준, 2009).

학령 후기의 아동은 제2차 성장을 경험하면서 남, 여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발달적 특징에 의해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성별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보통 여아는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더 높은 데 비해 남아는 공격적인 행동이나 또래 갈등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주희, 2000; 위영희, 2004). 또한 일반아동과 영재아동의 또래관계를 비교한 연구(박승철, 2005)에서도 남아보다 여아의 또래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정서지능이 높은 경향을 지니는데 이러한 정서지능의 차이가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유능성에 차이를 가져다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지영, 강성숙, 이경옥, 2009). 이에 반해, 박남자, 나은숙, 조인숙(2008)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사회지식과 유능성 부분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위의 연구들과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또래관계 연구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또래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아동의 출생순위, 부모-아동의 상호작용의 질, 부모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모 취업여부 등과 같은 가정배경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경향이나, 사회적 능력, 사회정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들(Felner et al., 1995; Goldsall, et al., 2004; Perry & Bussy, 1984)이 보고하고 있다.

그 중 아동의 출생순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순위가 우위일수록 부모의 양육경험과 높은 기대수준이 아동의 발달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쳐 높은 성취를 이루게 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김재우, 손경환, 2009), 아동이 형제관계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과 유사한 것임을 보고한 연구결과(Buhrmester, 1992; East & Rook, 1992; 정유진, 2005 최용주, 1992)도 다수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아동의 출생순위가 또래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른 변인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문태형(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지능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경아, 이진숙(2003)과 남영옥(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능력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박남자, 나은숙, 조인숙(2008)의 연구에서는 유아가 사회적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어떠한 하위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배경 중 부모의 교육수준을 다루는 것은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이 더 이상 소수계층의 문제가 아닌 일상적인 가족의 생활유형으로 변화됨에 따라, 아동의 내면적인 태도와 관계의 변화까지 초래하여 발달적 맥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문혁준, 2009). 일반적으로 취업모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육죄책감을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비취업모는 양육과 가사에 대한 심리적 갈등과 부담을 가지고(고성혜, 1994) 자녀를 양육하게 되므로 이러한 요인에 따라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또래관계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혼자 지내는 아동이 많아지고 자기조절능력의 부재가 증가되면서 인터넷 중독, 집단 따돌림 등이 또래관계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Calkins(1994)는 정서조절이 정서적 각성을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과정과 책략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정서조절을 통해 효과적인 대인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Hurtup과 Sancilio(1986)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또래관계가 아동기 이후의 대인관계의 틀을 형성해 주고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자기조절능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를 잘 조절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나타내는 아동은 또래와 더 잘 지내나(임연진, 2002; Hubbard & Coie, 1994; Putallaz, 1983),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한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다른 아동으로부터 거부되며, 대인관계에서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립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upersmidt & Coie, 1990). 정서조절의 요인연구에서도 효과적인 정서조절기술을 습득한 아동은 또래와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으며(Wilson, 1999), 또래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된 변인연구로는 성별에 따라 여아가 남아보다 행동통제력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강기숙, 이경임, 2001; Kendall & Wilcox, 1979)와 성별에 따라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곽혜경, 1998; 손경화, 2001)로 차이를 보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연구(김혜순, 강기숙, 2005)가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유아나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자기조절능력을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한 연구(강기숙, 이경임, 2001;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 2006; 이정란, 2003; 조순옥, 2008)는 많으나, 사춘기가 시작되는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와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적음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과 또래관계 간의 관련성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

며 또래관계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 폭 넓어지는 초등학교시기에 주도적이며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삶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리더십은 특정 집단에서 특정 인물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어느 집단에서나 공동의 목적을 영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특정인만이 소유하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므로 모든 아동들은 리더십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Hensel, 1991; Kames & Bean, 1996)에서 리더십은 인간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특히 리더십에 관한 잠재성과 관련하여 아동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한 가지로 또래에 대한 높은 사회성을 밝힌 바 있으며(Hensel, 1991), 리더십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최윤재, 2009; 한선화, 유순화, 2005)에서 인간관계기술 및 집단활동기술 등 타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하위요소를 리더십 기술의 기본 요소로 구성한 것은 리더십이 개인 내적뿐만 아니라 대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리더십에 대한 남아와 여아의 차이를 본 연구에서 김복희(2006)는 남아가 여아보다 유아의 공동체 리더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서기남(2009)과 문혁준(2010)은 여아가 남아보다 리더십이 더 높다고 보고하여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비록 유아와 관련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어머니 취업으로 인해 종일제 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들의 리더십이 반일제 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들보다 리더십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장영숙, 황윤세, 2009; Harman, 1982; Stewart, 1990)를 볼 때,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아동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리더십이 또래관계와 연관이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는 유아나 성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문혁준, 2010),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조절능력이나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을 함께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들 변인과 관련된 연구는 이후 연구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처럼 아동 후기의 또래관계는 아동의 여러 가지 개인 내적 및 외적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앞으로 아동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출생순위,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사회 인구학적 변인으로 두고,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남아와 여아의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남아와 여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아동의 학령 후기에 나타나는 또래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각각 1곳의 총 10개 학급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령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아동 중기 및 초기 청소년기가 동성또래 및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단짝 친구관계 시기라는 선행연구(이은해, 고윤주, 1999)에 기초한 것이며, 초등학교 6학년은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 4월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타당성과 변별력을 검증하기 위해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6월 18일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배부하고 약 2주 후 총 326부를 회수하여, 누락되거나 이중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314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314명의 아동 중 남자는 146명(46.5%), 여자는 168명(53.5%)로 비슷하였으며, 출생순위는 둘째가 126명(40.1%), 첫째가 115명(36.6%), 외동이 44명(14.0%), 셋째가 26명(8.3%)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아버지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40명(44.6%)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85명(27.1%), 전문대학 졸업 60명(19.1%), 대학원 이상 29명(9.2%) 순으로 나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314)

	구분	빈도	%
성별	남	146	46.5
	여	168	53.5
출생순위	외동	44	14.0
	첫째	115	36.6
	둘째	126	40.1
	셋째	26	8.3
	넷째	2	.6
	다섯째	1	.3
아버지 교육정도	고졸	85	27.1
	전문대졸	60	19.1
	대학교졸	140	44.6
	대학원 이상	29	9.2
어머니 교육정도	고졸	102	32.5
	전문대졸	69	22.0
	대학교졸	118	37.6
	대학원 이상	25	8.0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50	15.9
	사무직	131	41.7
	서비스직	51	16.2
	기타	82	26.1
어머니 직업	전문관리직	19	6.1
	사무직	50	15.9
	서비스직	72	22.9
	전업주부	121	38.5
	기타	52	16.6
어머니 근무시간	시간제	73	23.2
	종일제	122	62.1

났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118명(37.6%), 고등학교 졸업 102명(32.5%), 전문대

학 졸업 69명(22.0%), 대학원 이상 25명(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131명(41.7%), 기타 82명(26.1%), 서비스직 51명(16.2%), 전문관리직 50명(15.9%)의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 121명(38.5%), 서비스직 72명(22.9%), 기타 52명(16.6%), 사무직 50명(15.9%), 전문관리직 19명(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업모 어머니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시간제 근무가 73명(23.2%), 종일제 근무가 122명(62.1%)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자기조절능력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Kendall과 Wilcox(1979)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조절능력 척도(Self Control Rating Scale: SCRS)를 김문신(2003)이 자기보고식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한 총 33문항 중 최해주(2007)가 20문항을 채택하여 사용한 것을 재사용하였다. 채택문항 근거는 Kendall과 Wilcox(1979)의 SCRS를 우종하(1990)가 15문항으로 번안, 수정한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조절, 충동성 그리고 자기조절과 충동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기조절 .76, 충동성 .75, 자기조절과 충동성 .75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0로 나타났다.

리더십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리더십 측정도구로는 한국교육개발원(2003)이 개발한 ‘지도력 진단 도구’의 리더십 진단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목표달성능력, 재창조능력, 통솔력, 인간관계능력, 목적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문항이다. 본 검사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목적달성능력 .88, 재창조능력 .90, 통솔력 .87, 인간관계능력 .88, 목적의식 .87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또래관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 관계 검사는 연구 대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및 태도, 행동 특성을 아동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검사로 홍옥순(1984)이 개발하고 김태희(2005)가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이해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아동 상호 간의 신뢰감과 존중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신뢰감 .78, 존중감 .82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사회 인구학적인 배경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자기조절능력, 리더십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아의 자기조절능력($M=3.35$, $SD=.46$), 리더십($M=3.49$, $SD=.63$), 또래관계($M=3.28$, $SD=.42$) 보다 여아의 자기조절능력($M=3.48$, $SD=.48$), 리더십($M=3.71$, $SD=.56$), 또래관계($M=3.45$, $SD=.41$)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능력($t=-2.33$, $p<.05$), 리더십($t=-3.13$, $p<.01$), 또래관계($t=-3.70$, $p<.001$)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

표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관계 (N=314)

	남자 (n=146)	여자 (n=168)	t
	M(SD)	M(SD)	
자기조절능력	3.35(.46)	3.48(.48)	-2.33*
리더십	3.49(.63)	3.71(.56)	-3.13**
또래관계	3.28(.42)	3.45(.41)	-3.70***

* $p<.05$ ** $p<.01$ *** $p<.001$

표 3. 남아와 여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의 차이 (N=314)

		외동 또는 첫째	둘째 이상	<i>t</i>
		<i>M</i> (<i>SD</i>)	<i>M</i> (<i>SD</i>)	
자기조절 능력	남아	3.45(.47)	3.25(.43)	2.71**
	여아	3.46(.54)	3.49(.41)	-.39
리더십	남아	3.67(.59)	3.31(.63)	3.55**
	여아	3.65(.56)	3.76(.56)	-1.23
또래관계	남아	3.34(.44)	3.21(.40)	1.84
	여아	3.46(.45)	3.44(.38)	.34

** $p < .01$

이를 보였다.

남아와 여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외동 또는 첫째인 남아의 자기조절능력($M=3.45$, $SD=.47$), 리더십($M=3.67$, $SD=.59$), 또래관계($M=3.34$, $SD=.44$)가 둘째 이상의 출생순위인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조절능력($t=2.71$, $p<.01$)과 리더십($t=3.55$,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여아의 경우, 외동이나 첫째보다는 둘째 이상의 출생순위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M=3.49$, $SD=.41$)과 리더십($M=3.76$, $SD=.56$)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아와 여아의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를 살펴보면 표 5, 표 6과 같다. 남아의 경우, 전문대 이하의 교육을 받은 아버지를 둔 남아와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아버지를 둔 남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아의 경우, 전문대 이하의 교육을 받은 아버지와 대학교

표 4. 남아와 여아의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의 차이 (N=314)

		전문대 이하	대학교 이상	<i>t</i>
		<i>M</i> (<i>SD</i>)	<i>M</i> (<i>SD</i>)	
자기조절 능력	남아	3.32(.46)	3.38(.46)	-.68
	여아	3.41(.47)	3.54(.48)	-1.85
리더십	남아	3.40(.66)	3.56(.60)	-1.55
	여아	3.53(.57)	3.87(.51)	-4.09***
또래관계	남아	3.24(.42)	3.31(.42)	-.99
	여아	3.38(.41)	3.52(.41)	-2.23*

* $p < .05$ *** $p < .001$

이상의 교육을 받은 아버지 사이에는 리더십($t=-4.09$, $p<.001$), 또래관계($t=-2.23$,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남아와 여아의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남아의 경우, 전문대 이하의 교육을 받은 어머니를 둔 남아와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어머니를 둔 남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아의 경우, 전문대 이하의 교육을 받은 어머니와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어머니 사이에는 자기조절능력($t=-3.00$, $p<.01$), 리더십($t=-3.60$, $p<.001$), 또래관계($t=-2.65$, $p<.01$)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아와 여아의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남아의 경우, 비취업모를 둔 남아가 취업모를 둔 남아보다 자기조절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서로 유의미한 차이($t=-3.00$, $p<.01$)를 보였으나 여아의 경우, 유의미한 차

표 5. 남아와 여아의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의 차이 (N=314)

		전문대 이하	대학교 이상	t
		M(SD)	M(SD)	
자기조절 능력	남아	3.29(.49)	3.43(.42)	-1.84
	여아	3.38(.44)	3.59(.50)	-3.00**
리더십	남아	3.43(.65)	3.57(.61)	-1.31
	여아	3.56(.59)	3.87(.49)	-3.60***
또래관계	남아	3.25(.41)	3.32(.44)	-1.05
	여아	3.37(.41)	3.54(.40)	-2.65**

** $p < .01$ *** $p < .001$

표 6. 남아와 여아의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의 차이 (N=314)

		취업모	비취업모	t
		M(SD)	M(SD)	
자기조절 능력	남아	3.30(.44)	3.45(.48)	-1.20*
	여아	3.46(.47)	3.50(.49)	-.43
리더십	남아	3.46(.61)	3.56(.66)	-.85
	여아	3.66(.55)	3.77(.59)	-1.21
또래관계	남아	3.24(.42)	3.34(.43)	-1.43
	여아	3.44(.40)	3.48(.43)	-.56

* $p < .05$

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남아와 여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상대적 설명력

사회 인구학적 변인(출생순위,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여부), 자

기조절능력, 리더십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가중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VIF는 10이하(1.03~1.74), TOL는 0.1이상(.57~.97)을 보였으며, 여아의 경우 VIF는 10이하(1.06~1.91), TOL는 0.1이상(.53~.95)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7에서 남아의 경우, 1단계에서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5%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남아의 자기조절능력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13%로, 자기조절능력이($\beta = .38, p < .001$) 남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리더십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24%로, 리더십($\beta = .61, p < .001$)이 남아의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순위,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여부,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관계의 설명력은 총 42%로 나타났다. 한편, 여아의 경우, 표 8에서와 같이 1단계에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5%로, 남아와 마찬가지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여아의 자기조절능력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15%로, 자기조절능력이($\beta = .40, p < .001$) 여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리더십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12%로, 리더십($\beta = .45, p < .001$)이 여아의 또래관계에 유

표 7. 남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상대적 설명력

(N=146)

독립변인		또래관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출생순위a	-.11	-.13	-.05	-.06	.04	.05
	아버지 교육수준b	.05	.06	.06	.08	-.00	-.01
	어머니 교육수준c	.07	.09	.01	.01	.04	.04
	어머니 취업여부d	.08	.10	.03	.04	.03	.04
자기조절능력				.34	.38***	.06	.06
리더십						.40	.61***
F 값		1.65		5.92***		15.84***	
R^2		.05		.18		.42	
R^2 변화량				.13		.24	

*** $p < .001$

a: 가변수(외동 또는 첫째=0, 둘째 이상=1), b: 가변수(전문대 이하=0, 대학교 이상=1),

c: 가변수(전문대 이하=0, 대학교 이상=1), d: 가변수(취업모=0, 비취업모=1)

표 8. 여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상대적 설명력

(N=168)

독립변인		또래관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출생순위a	.01	.01	-.01	-.01	-.05	-.06
	아버지 교육수준b	.06	.07	.06	.08	-.03	-.08
	어머니 교육수준c	.13	.17	.05	.07	.03	.08
	어머니 취업여부d	.02	.02	.01	.01	-.02	-.03
자기조절능력				.34	.40***	.13	.16
리더십						.32	.45***
F 값		2.03		7.83***		12.38***	
R^2		.05		.20		.32	
R^2 변화량				.15		.12	

*** $p < .001$

a: 가변수(외동 또는 첫째=0, 둘째 이상=1), b: 가변수(전문대 이하=0, 대학교 이상=1),

c: 가변수(전문대 이하=0, 대학교 이상=1), d: 가변수(취업모=0, 비취업모=1)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순위,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여부,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관계의 설명력은 총 32%로 나타났다.

즉, 출생순위,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여부는 남아와 여아 모두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조절능력과 리더십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기조절능력과 리더십이 높을수록 남, 여 아동의 또래관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아보다는 남아가 이러한 변인들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남, 여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동의 또래관계와 관련된 변인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며 몇 가지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남아와 여아의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는 남아보다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능력과 리더십이 아동의 또래관계와 관련된 변인이며, 또래관계는 아동의 대인관계 및 사회성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가정할 때, 여아가 남아에 비해 또래와의

갈등빈도가 적게 나타나며 친사회적인 성향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김정아, 1990; 도현심, 1994; 박주희, 2000; 위영희, 2004; 박승철, 2005; 박수향, 200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시 성차를 고려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외동 또는 첫째인 남아가 둘째 이상의 순위인 아동보다 자기조절능력과 리더십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출생순위가 우위일수록 형제들을 지도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발달적 성취도 높다는 연구결과(김재우, 손경환; 2009; Kidwell, 197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출생순위에 따라 부모의 교육활동 참여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양숙경, 문혁준, 2009)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만이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한 결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출생순위 분포를 보이는 집단을 연구한다면 출생순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과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 이하의 교육을 받은 부모를 둔 여아보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부모를 둔 여아의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영향을 미쳤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박남자, 나은숙, 조인숙, 2008)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언어적 능력과 태도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남기곤, 2008), 일반적으로 여아는 남아보다 더 사교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부모는 딸과 더 많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Grief, Alvarez, & Ulman, 1981)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와 연계된 부모교육 또는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부모의 비형식적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둔 아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비취업모를 둔 아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남아는 자기조절능력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낮은 자기조절능력을 보인다는 결과(강기숙, 이경임, 2001; 이정란, 2003; Kendall & Wilcox, 1979)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남아의 경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양육에 참여하는 어머니에 의해 자기조절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취업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육에 참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업모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동 양육에 대한 주책임은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와 교육에 대한 책임도 요구되므로 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에 의한 양육과 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남아와 여아의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아와 여아 간에는 이들 변인들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비록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성별, 출생순위, 부모의 학력, 모 취업 등에 따라 또래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김현정, 이상은, 조운아, 2009)와 일치한다.

둘째, 남아와 여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리더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강기숙, 이경임, 2001; 남기곤, 2008; 박수향, 2005; 이정란, 2003; 송도영, 2008; Kendall & Wilcox, 1979)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남아와 여아 모두 리더십이 높은 아동일수록 또래관계가 높으며, 이러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비록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임으로써 후속 연구에서 또래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2단계에서 자기조절능력 변인의 영향력이 리더십 변인 투입에 의해 3단계에서는 소멸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자기조절능력과 리더십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지만, 변인들 간의 관계를 횡단적인 연구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

구결과에서 제시하는 변인은 종단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횡단적인 연구에서 주는 한계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환경, 연령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환경과 연령을 동시에 고려한 대상선정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시각에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보고식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문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심층면접을 통한 후속 연구나 객관적인 정보로서 부모나 교사에게 의한 평가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학령 후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출생순위, 부모의 교육수준, 취업모 여부 등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자기조절능력, 리더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령 전기 아동의 또래관계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가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부모교육과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돕는 학교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기숙, 이경임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고성혜 (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곽혜경 (1998). 유아의 기질, 유아가 제공한 통제계기,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귀자 (2004). 유아의 또래지위와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문신 (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복희 (2006). 농촌지역 유아의 공동체 리더십 연구.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우, 손경환 (2009). 유아의 형제유무와 운동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1), 233-253.
- 김정아 (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희 (2005).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정, 이상은, 조윤아 (2009). 다문화가정 유

- 아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 간의 상관성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3), 277-288.
- 김혜순, 강기숙 (2005). 유아의 지능, 가정양육 환경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17-26.
- 남기곤 (2008).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 국제비교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7(1), 61-92.
- 남영옥 (2006). 가정환경변인 및 기질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교육, 15(1), 279-292.
- 도현심 (1994). 아동의 수줍음, 대인 적응성 및 또래 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45.
- 문태형 (2001). 아동의 사회지능, 자아효능감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아동교육, 10(2), 37-48.
- 문혁준 (2007). 부모-자녀 관련 국내학술지 논문의 연구 동향. 아동학회지, 29(2), 15-31.
- 문혁준 (2009).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0(2), 57-69.
- 문혁준 (2010). 취학 전 남아와 여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기질, 또래상호작용,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1), 35-46.
- 박남자, 나은숙, 조인숙 (2008). 유아의 사회지능과 부모 배경 변인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12(2), 6-21.
- 박수향 (2005). 부모 역할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승철 (2005). 초등학교 과학 영재아동과 일반 아동의 또래관계 및 자기효능감 비교.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희 (2000).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기남 (2009).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된 변인 연구: 유아의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손경화 (200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자아회복력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 (2006).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심리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127-148.
- 송도영 (2008). 교실 원예 활동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희이, 문혁준 (2009).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 및 아동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 아동학회지, 30(4), 33-46.
- 양숙경, 문혁준 (2009).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7), 59-71.
- 우종하, 김남성 (1989). 인지적 행동수정 훈련이 아동의 행동성 및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1), 36-55.
- 위영희 (2004). 유아의 정서 능력과 또래 유능성. 교육발전학회지, 23(1), 137-158.

- 이은혜, 고윤주 (1999).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2.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영, 강성숙, 이경옥 (2009). 유아의 성별, 기질, 정서지능 및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유아교육연구*, 29(5), 45-64.
- 이지희, 문혁준 (2008). 아동의 정서성, 정서조절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4), 1-14.
- 임연진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장영숙, 황윤세 (2009). 반일제와 종일제 유아의 정서지능과 리더십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3(4), 187-205.
- 전경아, 이진숙 (2003). 유아의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659-668.
- 정유진 (2005). 또래관계와 어머니 및 형제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의숙 (2009).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순옥 (2008). 유아의 또래 수용과 기질, 행동조절, 정서적 유능감과 관계 및 상대적 영향력. *영유아교육연구*, 11, 63-81.
- 조한숙, 문혁준 (2009).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공감적 이해 수준 및 아동의 학습동기와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30(5), 23-39.
- 최용주 (1992).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에 따른 대체지지에 관한 연구: 학교친구, 학교 외 친구, 형제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윤재 (2009). 초등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리더십 기술과 사회성숙도 비교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해주 (2007).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 변인 간의 경로모형분석: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과 어머니 변인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선화, 유순화 (2005). 중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기술, 사회적성숙도 및 행위통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3), 291-325.
- 홍옥순 (1984). 집단 상담을 통한 지도가 학급내의 인간관계변화에 미치는 영향. *현장 교육의 이론과 실제II*. 서울: 갑을 출판사.
- Buhrmester, D. (1992). The development courses of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 In F. Boer, & J. Dunn(Eds.),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pp.19-40).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ukowski, W.,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 New York: Wiley.
- Calkins, S. D. (1994). Origin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pp.53-71). Monographs on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 59, nos. 2-3, serial no. 240).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East, P. L., & Rook, K. S. (1992). Compensatory patterns of support amo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 A test using school friends, nonschool friends, and sibl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163-172.
- Felner R. D., Brand. S., DuBois. D. L., Adan. A. M., Mulhall. P. F., & Evans. E. G. (1995). Socioeconomic Disadvantage, Proximal Environment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Investigation of a Mediated Effects Model. *Child Development*, 66(3), 774-792.
- Goin, R. P. (1998). A review of peer social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42, 1-8.
- Goldsall, R. E., Jurkovic. G. J., Emshoff. J., Anderson. L., & Steanwyck. D. (2004). Why some kids do well in bad situation: Relation of parental alcohol misuse and parentification to children's self-concept. *Substance Use & Misuse*, 39(5), 789-809.
- Grief, E. B., Alvarez, M., & Ulman, K. (1981, April). *Recognizing emotions in other people: Sex differences in social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oston.
- Harman, D. (1982). Extend-day kindergarten vs. half-day kindergarten achievement difference. Master's Thesis, Kean College of New Jersey(ERIC Document R production Service. No ED 215 784).
- Hensel, N. H. (1991). Leadership giftedness: Social leadership skills in young children. *Roeper review*, 14, 4-19.
-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 1-20.
- Hurtup, W. W. & Sancilio, M. F. (1986). Children's friendships. In E. Schopler & G. B. Mesibor (Eds.), *Social behavior in autism*(pp. 61-79). N. Y.: Plenum.
- Kames, F. A., & Bean, S. M (1996). Leadership and the gifted.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29(1), 1-12.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al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47(6), 1020-1029.
- Kidwell, J. S. (1978).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affect: An Investigation of Only Children vs Firstborns and the Effect of spacing. *Journal of Population*, 1, 148-166.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 1350-1362.
- Ladd, G. W., Price, J. M., & Hart, C. H. (1990). Preschoolers' behavioral orientations and patterns of peer contact: Predictive of peer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90-11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rry, D., & Buss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Originally published, 1932).
- Putallaz, M. (1983). Predicting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from their behavior. *Child Development*, 54(6), 1417-1426.
- Rubin, K. H. (1982). Nonsocial play in preschoolers: Necessarily Evil? *Children Development*, 53, 16-24.
- Santrock, J. W. (2003). *Children* (7th ed). New York: McGraw-Hill, Inc.
- Stewart, A. C. (1995). 탁아. 서영숙(역). 서울: 교육과학사.
- 1 차원고접수 : 2010. 04. 02.
수정원고접수 : 2010. 05. 16.
최종게재결정 : 2010. 05. 26.

The effects of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leadership on peer relationships

Yun Hee Jang

Department of Children Educ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 Student

Hyuk Jun Moo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leadership on peer relationships, with a specific regard to the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The subjects were 314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146 boys and 168 girls, from Seoul and Gyeonggi-do.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ur result indicated that firstly, girls self-regulation, leadership and peer relationships were higher than boys. Secondly, girls were related to peer relationships, leadership, and home environment (parents' educational level). However, in contrast, boys were related to self-regulation, leadership, and the home environment (birth order, working mother). Thirdly, it was also found that self-regulation and leadership were good predictors for peer relationships in both boys and girls.

Key words : boy, girl, self-regulation, leadership, peer relationship.